나라는 걸 빼버려라! 공했다는 걸 알아라!

☞ 21면에서 계속

데 인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불은 영원한 겁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다 이 소립니다. 그거는 우리 몸뚱이가 있든 없어지든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이건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말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벗고 죽으면, 늙어서 죽었든 젊어서 죽었든 아주 애 적에 죽었든, 죽으면 탈바가지만 없어지는 거지 그 사람 자체 근본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다시, 즉 구름이 모여서 한 식구로 살았다면, 흩어졌다가 또 딴 구름하고 모이듯이 딴 집 가서 또 태어납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깡통이면 깡통 집안에 태어날 거고 금이면 금 집안에 태어날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각처로 나누어져서 돌아가면서 또다시 태어납니다. 자식들도 태어나서 같이 살다 보면 응그랑 응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데, 깡통끼리 만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지 마시라 이런 소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데다가 되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부모지간이든 병고 아니면 애고, 애고 아니면 재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 덮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조금 벌어서 모일 만하면 '너 고렇게 모였구나.' 하고 탁 쳐 버리고 탁 쳐 버리고, 또 웬만큼 벌어서 살 만하다 그러면 그냥 반을 착 없애 버리고는 병들게 하거나 이렇게 일을 마련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한테서 오는데, 이걸 잘 이해해서 들어야 합니다. 가게에 가면 배는 배들끼리 모아 놨죠? 그래서 한 가족이 모두 똑같은 배라면 누구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죠. 하하하. 전체가 똑같은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뜻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느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끼리끼리 만남에 의해서 돌아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부인 탓을 하겠습니까, 남편 탓을 하겠습니까, 자식 탓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탓하지 말고 제가끔 생각하는 대로 제가끔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그냥 홀랑 벗어난다 이겁니다.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이끌어 가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낫게 해 주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고통스런 고가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없애고 네가 이끌어 줘야지 딴 데서는 이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놓는 작업을 수없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실험을 해서 거기다 놓고 착 지켜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완화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좀 더 유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대나무 방구씨를 심어서 대나무 귀신 방구털을 먹여서 키운다. 그런데 그 방구털을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허허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 '거기서만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네놈이 이끌어 줄 거고 네놈이 다 할 거고. 이 몸도 네 시자니까, 네 종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이끌고 다니려면 이끌고 다니고,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왈칵 그냥 다 놔 버리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굴려 놓는 자체가 팔수레공법이란 말입니다. 바로 사무 사유, 이것이 팔입니다. 모두를 본다면 하나하나가 그냥 거저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분이 다 지어 놓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그냥 살아가는 거 같지만 지금 살아나가는 게 끌려가고 매달려 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들을 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 사시는 마산 분들이 열심히 해서 마산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세요.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려면 세계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아야죠? 그런 데다가 또 수없이 인연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짐승을 만나고 이럴 때 한생각에 다 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바다로 비유해 보죠. 바다에 몇 양동이 물을 갖다 붓는다고 두드러집니까? 두드러지지 않죠? 또 몇 양동이를 퍼낸다고 줍니까? 안 줄죠? 고거와 같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으니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바로 평등공법, 활궁공법이 그냥 수없이 자동적으로 솔솔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중력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또 생각을 잘해서 발전하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홀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차원대로 높은 것입니다. '차원대로 높은 것이다' 하는 거는 낮고 높고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대로 높고 공업 하는 사람은 공업 하는 사람대로 높습니다. 고거 두 마디만 해도 아시겠지요? 상업 하는 사람은 상업 하는 대로 높고 요. 왜? 이거 하는 사람에게 저거 하라면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면 못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낮고 높은 게 없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대 성인들도 다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佛)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고 어느 거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이되,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모두 서로가 통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통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느 종교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끝간 데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다 이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라.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더라도 남을 증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는데 돈 내놓으라고 칼을 들고 하도 야단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 모두가 둘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그냥 급하니까 거기다 맡겼답니다. 급한 나머지 막 그냥 주인공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셋이서 "에이! 이놈 봐 봤자 시간만 낭비해." 그러곤 가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되고 창조를 해내야 되겠죠. 이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입니다.

어느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하니까 "너 다 버리고 간다면 먹지도 말아야 하고 입지도 말아야지. 또 참선을 한다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니까 앉았으면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고 오줌도 누지 말고 똥도 누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선 깨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이러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하나도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쪼그맣다고 깔보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도 망상과 졸음을 쫓기 위해서 턱에다 칼을 대고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잠이 오는 것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 망상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 모두 근본에 돌려놓으면 근본에서 잠을 덜 자게 할 수도 있고 더 자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수십억 마리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목석이 아닌 이상에야 생각이 있는 거지요. 목석입니까, 생각이 없게? 있는 대로 그냥 자꾸 거푸거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 맡겨 놓고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선 놓게 되면 졸음과 망상 때문에 공부 못 하지는 않습니다.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일어나 앉은 것도 참선이요, 선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아니, 어떤 거를 놓고 어떤 거를 안 놓고 어떤 거를 끊고 어떤 거를 끊지 않고가 어딨습니까? 그걸 송두리째 집어삼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우리가 탑을 쌓으려 해도 한순간에 쌓을 수가 있고 봉우리를 올려놓으려 해도 한순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수다 돈오다 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둘이 아닌 까닭에 앉았다 서는 것도 참선입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쓰겠나. 이렇게 공부가 안돼서 쓰겠나.' 하는 생각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모든 걸 다요.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건 돌려서 놓고요.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걸 내가 하고 어떤 걸 끊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래는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본래는 놓고 가는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못해서 고만 그렇게 업이 되죠.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말을 해 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사량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생각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태양의 근본에 의해서 은하계로 연결이 되고, 또 지구로 연결이 되고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에 다 연결이 돼서, 이름만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라고 하지 같이 돌아갑니다.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 있죠? 또 마음을 내는 마음,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삼위일체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대천세계와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 대천세계 도리천도 한생각에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다,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멋진 묘법을 모르고 육신을 그냥 버린다면 참 원통할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통하고 말고요! 남 날 때 나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도리를 알아서 세세생생 끝 간 데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나한테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놓고 가라.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